

북한개발소식

2026 SEP

09

통권 251호

이달의 주제

북중 경제 교류 협력 확대와 그 전망

탈북민 수기

탈북민 수기 : 김정직 목사 (제 9화)

북한뉴스

트럼프 “한미 연합 군사 훈련 규모 축소...
올해 안에 김정은 만날 것”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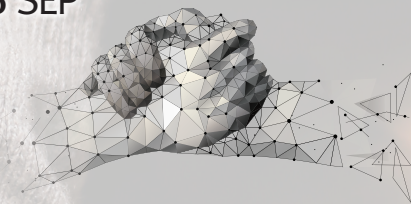
한국 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CONTENTS 2026 SEP

이달의 주제 :

북중 경제 교류 협력 확대와 그 전망



- 권두칼럼 **01** 북중 경제 교류 협력 확대와 그 전망
- 칼럼_1 **09** 임을출 _ 북·중 간 경제 교류협력 확대 : 평가와 전망
- 칼럼_2 **16** 김규철 _ 다시 가까워지는 북한과 중국, 경제협력은 어디로 갈까?
- 칼럼_3 **23** 백명숙 _ 신뢰와 평판으로 연결되는 북중 접경지역의 비공식 무역
- 탈북민 수기 **29** 탈북민 수기: 김정직 목사 (제 9화)
- 서평 **34** 돌아섬, 돌아봄
- 북한뉴스 **37** 트럼프 “한미 연합 군사 훈련 규모 축소... 올해 안에 김정은 만날 것” 외
- 북한 기도 제목 **40** 북·중 양국 관계 개선이 북한 선교의 문이 넓혀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외



권두칼럼

북중 경제 교류 협력 확대와 그 전망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2026년 6월 8~9일 평양에서 북중 정상회담이 열렸다. 7년 만에 이루어진 정상 회담에서 북중 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논의하였는데, 그 주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경제 분야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중국 측은 조선 측 과 발전 전략의 연계를 강화하고, 경제·무역, 농업, 건설, 과학기술, 의료·보건 등 분야의 실질 협력을 확대하여 양국 인민에게 더욱 큰 복을 가져다주기를 원한다” 면서 “쌍방은 국경 통상구의 전면 재개통, 민항 항공편과 국제 여객열차의 운행 재개를 계기로 인적 왕래를 확대하고 상호 방문을 실현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양국 간 경제 협력과 인적 교류 강화를 언급하였다.¹⁾

회담에서의 발언이 단순한 립 서비스가 아니라는 듯, 양국은 이와 관련된 신속 한 움직임을 보였다.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7월 11일)을 전후하여 양국은 서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했다. 북한의 박태성 내각총리는 7월 10일부터 12일 까지 방중해 시진핑 주석(권력 서열 1위), 리창 국무원 총리(2위), 자오러지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3위), 차이치 당 중앙서기처 서기(5위)를 차례로 만났 다. 직후인 7월 15일에는 중국 권력 서열 4위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이 2박 3일 일정으로 방북해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을 만났다. 이번 고위급 교류에 서는 박태성 총리가 베이징시 도시철도 관제센터를 시찰하고, 방북한 왕후닝 주

1) 북중, ‘전략적 동반자’ 선언...경제·외교·군사협력 강화 추진(종합), 연합뉴스 (2026.06.08.), <<https://www.yna.co.kr/view/AKR20260608029651504>>

석이 조용원 노동당 비서를 만난 자리에는 강철호 도시경영성 부상이 배석하는 등, 도시개발이나 교통 인프라 분야 등 양국 경제 협력 프로젝트와 관련된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다.²⁾

국경 지역에서도 실제적인 움직임이 관찰된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위성사진을 통해 신압록강대교의 북한 측 세관에서 대규모 공사가 빠르게 진행 중인 정황을 보도했다. 신압록강대교는 2014년 중국이 건설비를 부담해 다리 본체를 완공했으나 북한의 재정난과 건설 자원 부족, 코로나19 사태 등을 겪으면서 개통이 무기한 연기되어 왔다. 보도에 따르면 신압록강대교의 북한 쪽 구역에서 건물 골조 공사와 지붕 공사 등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북한 측 세관의 창고와 물류 시설, 세관과 보안시설 등이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³⁾ 중국 세관이 향후 해당 대교를 이용할 화물트럭의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정황도 확인되고 있다.⁴⁾

북중 교류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크게 위축되었고, 팬데믹 종식 이후에도 좀처럼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최근 양국의 움직임을 볼 때 양국 간 경제 교류 협력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이 글에서는 대북제재가 여전한 상황에서 양국의 경제 교류 협력은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그로 인한 파급 효과는 무엇일지, 그밖에 전망 등을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북한 경제와 북중 경제 협력

북한과 중국은 오래전부터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다. 특히 북한은 2010년대 중반 지하자원 판매와 의류 임가공 사업을 통해 상당한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냈다. 그렇지만 잇따른 북한의 핵실험과 이에 대응하는 유엔 대북제재 강화로 인해 기존에 북한이 성과를 보였던 석탄 수출과 의류 임가공 산업이 제재를 당하게 되었다. 거기에 더해 코로나19 팬데믹은 북한을 외부 세계와 단절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이는 경제적으로 북한에 치명적 타격으로 다가왔다.

이러한 어려움을 북한은 러시아를 통해 극복해왔다. 러우전쟁 참전과 러시아로

의 군수물자 수출을 통해 북한 경제는 다시금 회복세를 보였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GDP는 2023년 3.1%, 2024년 3.7%, 2025년 3.5%로 3년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루었다.⁵⁾ 그렇지만 최근까지도 북한 내부에서는 물가 급등과 환율 불안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경제 개선 효과가 북한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전략물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북러 협력의 특성상 군수산업을 중심으로 공식 부분의 회복에는 기여했지만, 주민들의 생활개선으로는 충분히 파급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⁶⁾

이러한 과리를 완화할 수 있는 핵심 경로로는 여전히 북중무역이 꼽힌다. 제재 이전 시기 북중무역 규모가 최대치에 도달했을 때, 소비재, 산업 중간재 등이 거래되면서 비공식부문과 주민 생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제공했음을 경험했기 때문이다.⁷⁾ 그렇지만 북한과 중국 사이의 교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된 2022년이 지난 이후인 23년과 24년에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했다. 특히 북한이 중국 대신 러시아와 밀착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양국 관계가 삐걱거리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북중 관계 개선과 회복된 경제 교류

이러한 미묘한 상황은 2025년 9월 중국 전승절과 뒤이은 북중정상회담 거치며 개선의 모습을 보였다. 2025년 북중 무역량(27억 4천만 달러 규모)은 2024년에 비해 25% 증가하여서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9년 (27억 8901만 8천 달러) 수준을 회복하였다. 특히 9월 중국 전승절과 이은 북중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의 교역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⁸⁾ 이에 더해 올해 6월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북중 교류 협력 확대를 논의한 만큼, 앞으로 양국 간 교류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의 북중 관계 개선은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여전히 중요한 행위자임을 과시하는 한편, 밀착된 북러 관계를 일정 부분 관리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중국이 북한을 단순한 전통적 우호국이 아니라, 미

2) 북중 우호조약 65주년 맞아 ‘혈맹’ 과시…중서열 1~5위 총출동, 아시아경제 (2026.07.17.),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71715374241053>>

3) 신압록강대교 북한 세관 공사 급진전, 자유아시아방송RFA (2026.07.21.), <<https://www.rfa.org/korean/in-focus/2026/07/21/north-korea-china-new-bridge-customs-construction/>>

4) 신압록강대교 中 세관, 화물트럭 정보 등록 진행…무슨 의미?, 데일리NK (2026.07.29.), <<https://www.dailynk.com/20260729-1/>>

5) 작년 북한 경제 3.5% 성장…북러 협력 확대 등에 3년 연속 3%대, 연합뉴스 (2026.07.31.), <<https://www.yna.co.kr/view/AKR20260731069500002>>

6) 이지선 (2026), “북한 경제의 대외활동 모색: 북중 여객열차 재개의 함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S 이슈브리프 826호.

7) 이종규 (2026), “기रो에 선 북한경제: 2025년 평가 및 2026년 전망”, KDI북한경제리뷰 2026년 1월호, pp. 21-22.

8) “2025년 북-중 무역 25% 급증…팬데믹 이전 수준에 근접”, SPN서울평양뉴스 (2026.01.21.), <

중 전략경쟁이 장기화되는 국제환경 속에서 협력해야 할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음을 이번 회담을 통해 보여주었다는 평가이다.

한편 북한은 그동안 중국과의 경제 협력 활성화를 전략적인 역점 사업으로 꼽아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북한은 러시아를 통해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지만 그 한계도 분명했다. 북한과 유사하게 지하자원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은 산업 발전에는 그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게다가 오랜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의 재정 고갈과 국제사회의 금융 제재로 인한 유동성의 제약 등 여러 이슈로 인해 북러 무역이나 경제 협력 수준은 제한적이라 평가되며, 러시아가 북한 측에 지원에 대한 충분한 수준의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⁹⁾ 근본적으로는 러우 전쟁이 언젠가 끝나게 된다면, 그 이후에도 북한이 현재와 같은 경제적 특수를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표가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과의 경제 협력은 북한 당국에 필수적 과제로 다가왔을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승절 이후 진행된 북중 정상회담 결과 내용에서 북한이 적극적인 경제협력 의사를 비추었지만, 중국이 기대만큼 호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읽을만한 대목도 있었다.¹⁰⁾ 그렇지만 이번 6월 평양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중 간 경제 협력이 궤도에 오르게 된 것이다.

과거와는 다른 모습의 북중 경제 교류 협력

이번 북중 교류 협력은 이전 경험을 떠올려 볼 때 민생을 포함한 북한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번 협력은 여러 면에서 과거와는 다른 특징을 보여 주목된다.

먼저 눈에 띄는 점은 북한의 대외무역 방식이 개인에서 국가 주도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북중 무역은 비공식·자율적 밀수 네트워크가 약해지고 양국 당국의 철저한 통제 아래 작동하는 ‘국가 주도형 제도적 무역 체제’로 재편되는 모양새를 보인다.¹¹⁾ 국경 통제 밖에서 이루어지던 밀수를 비롯한 사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북중 양국의 공조 수위가 강화되는 등 단속이 강화되었고, 제도적으로도 무역을 위해 요구되는 행정적 요건이나 통관 절차가 전에 비해 까다로워졌

다.¹²⁾ 여기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구축된 방역 인프라도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검역 절차나 무역 승인, 통관 등을 위한 제도적 문턱이 높아지면서 개인이나 소규모 상인들의 활동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반면, 대형 통관 인프라, 당·정·군 산하의 대형 외화벌이 기관, 규격화된 물류망을 갖춘 대형 무역상들이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즉 국경 재개 이후 접경경제는 “누가 교역에 참여할 수 있는가를 둘러싼 접근권의 재배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¹³⁾

이번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단순히 자원 수출 또는 임가공 수출을 넘어서 산업 발전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북한의 시도도 주목된다. 최근 북한 당국은 단순히 자원과 원료를 수출하는 데 머물지 않고 중국 사업가들로부터 공장과 기업소에 직접 투자를 받아 설비를 확충하고, 상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방식으로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⁴⁾ 여기에는 북한 당국이 수년 전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한 지방발전 20×10 정책이 맞물려있다. 정책적으로 여러 경공업 생산 공장을 세웠지만, 자금난과 설비 부족, 전력 부족 등 원활한 공장 가동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를 중국 기업의 투자를 통해 합작 형태로 운영하면서 원료의 직접 수출이 아닌 가공품을 상품화하여 수출하겠다는 것이다.¹⁵⁾ 중국 투자자 입장에서 북한은 풍부한 자원과 저렴한 인건비는 매력적이다. 이뿐 아니라 대북 제재 품목이라도 북한 내에서 가공한다면 이를 우회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된다. 예를 들어 북한의 수산물물은 대북 제재에 따르면 금지 품목이지만, 포장된 가공품이라면 세관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¹⁶⁾

실제로 북중 무역의 주요 도시인 단둥에는 북한산 상품을 취급하는 매장과 점포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 과거 개성고려인삼, 평양소주, 약재류 등 단순 기념품 수준에 머물렀던 매장 진열대도 최근 화장품, 과자, 즉석국수, 커피강정, 다종화된 맥주 브랜드 등 다양해진 모습이다.¹⁷⁾ 또한 과거보다 포장재 품질, 디자인, 성분 표기, 제품 다양성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ISO22000 인증을 활용하는 등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국제 표준을 활용하

9) 최장호·최유정(2026), “2025년 북중 무역 평가: 국가 유통망의 복원과 무역 적자의 심화”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26, No.7 (2026.03.18.), p. 4.

10) 성기영 외 (2025), “김정은의 중국 전승절 외교: 주요 쟁점별 평가 및 전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S 이슈브리프 제729호 (2025.09.09.), pp. 2-3.

11) 임을출 (2026), “현장에서 본 북·중 경제무역 관계 변화 동향”, 경남대학교 국동문제연구소 IFES BRIEF 2026-14 (2026.08.10.), p. 3.

12) 북중 교역 확대했지만 장벽 높아져...기업 중심으로 재편, 데일리NK (2026.04.06.), <<https://www.dailynk.com/20260406-3/>>

13) 이주희 (2026), “북한 국경 재개 이후 북중 접경지역의 교류질서 재편: 접경 거버넌스와 변경경제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31집 제2호 통권 119호, pp. 17-19.

14) 원료 수출에서 부가가치 가공품 수출로 전환...외화벌이 체질 개선, 데일리NK (2026.08.12.), <<https://www.dailynk.com/20260812-1/>>

15) <북한>중국 기업가들의 갑작스런 방북 러시 "여권정보를 보내면 누구나 갈 수 있다" 투자 유치 위해 수속 간소화, 아시아프레스 (2026.05.20.), <<https://www.asiapress.org/korean/2026/05/nk-economy/rush/>>

16) 위의 글

17) 임을출 (2026), 앞의 글, p.4-5.



〈중국에서 유통되는 다양한 북한 식
음료 제품들²³⁾〉

고 있었다.¹⁸⁾ 북한이 광물과 수산물 등 전통적인 주력 품목이 제재를 당하는 상황에서 제재 수위가 낮고 민생용으로 분류되는 식음료 및 경공업 제품군을 새로운 외화벌이 창구로 적극 재편한 모습이다.¹⁹⁾ 이러한 북한의 식료품 수출에서 관찰되는 북한의 지역 산업화 정책과 접경 무역 재개의 결합을 일종의 구조적 전환으로 평가하는 의견도 있다.²⁰⁾ 북한이 중국과의 합작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순 자본·설비 유치에 머물지 않고 생산 방식과 운영 노하우를 습득하는 데 힘쓰고 있다는 소식²¹⁾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북중 경제협력의 질적 변화와 연관 지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외에도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이 러시아를 포함한 형태로 확대될 가능성도 이야기되고 있다. 특히 중국이 관심을 두고 있는 동해 출해권과 관련한 두만강 하구 개발과 관련한 북중러 협력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는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안보 문제와도 연결되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그 추이가 주목된다.²²⁾

향후 주목할 점과 기도 제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북중 경제 교류 확대를 통해 북한은 단순한 외화벌이를 넘어서 산업을 발전시키고 질적으로 경제를 도약시키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과거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시작으로 국가 주도로 경제를 발전시켰던 남한의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 다만 경제분야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북한의 상황에서 이러한 시도가 얼마나 실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이 외에도 북한 경제를 둘러싼 변수는 여전히 많다. 가장 먼저 지적되는 점은 과도한 중국 의존 문제이다. 과거에도 경제적으로 북한이 과도하게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취약점으로 꼽혀왔다. 근래에도 잠시 러시아를 통한 경제 회복이

있었지만 이는 전쟁 특수적인 성격이 있는 만큼 그 한계도 분명하다는 평가이다. 관련하여 이종민 국방대 교수는 북한 경제의 수출 구조가 저부가가치, 저기술, 단일시장(중국)에 의존이라는 구조적 함정에 빠져있다고 평가하고, 수출의 '질적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무역을 통한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²⁴⁾ 최근의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도 그 범위나 속도에 있어서 중국이 대북 제재 우회를 얼마나 눈감아줄 것인지, 아니면 관광 등 제재의 직접 대상이 아닌 영역에서 집중하는지, 회담에서 언급된 인적 교류는 얼마나 확대되는지 등 아직까지는 불명확한 점들이 많으며, 이 중 많은 항목이 중국 측에 주도권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 외에도 여전히 재개되지 않고 있는 중국발 북한 관광에서 개방과 외부 노출을 경계하는 북한 당국의 태도도 눈에 띈다. 이러한 체제 부담과 리스크를 북한이 어떻게 다루어 나갈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교적 관점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북한 선교의 특성상 선교 대상자들 만날 수 있는 경로가 제한적이고, 거기에 더해 오랫동안 국경이 꽂꽂 얼어붙으면서 선교 사역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맥락에서 양국 간 교류 확대는 선교에 긍정적인 변화임에는 분명하다. 다만 과거와 같은 수준, 같은 방식의 선교 활동이 가능하리라고 속단하기엔 일러 보인다. 양국 간 교역이 개인이 아닌 공식 루트를 통해 국가가 주도하는 구조적 변화를 거치면서 선교적 공간이 좁아졌고,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발전된 방역 명목의 통제 인프라와 디지털 통제 자산 강화 등도 선교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북한 주민들이 본격적으로 중국을 왕래하게 되더라도 이러한 변화된 상황과 강화된 통제와 감시 시스템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요청된다.

일반적으로 중국과의 경제협력은 북한의 민생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 효과가 얼마나 서민들에게 돌아갈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중국과의 교역 증가는 필연적으로 위안화를 비롯한 외화의 수요를 증가시키는데, 이는 자연스럽게 북한 내 물가 상승 등과 맞물린다. 실제로 이번 회담 이후 북한 내 환율과 물가의 동반 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²⁵⁾ 이러한 환율, 물가 상승은 달러나 위안화 등 외화를 거의 보유하지 못하는 서민 계층에게 더 치명적이다. 게다가 북한 당국은 주민들이 시장 대신 기업소나 공장에서 일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도록 유도하고자 시장 내 개인 활

18) 김옥 (2026), "코로나19 이후 북-중 식료품 산업의 구조적 재편과 시사점", 대외정책연구원 CSF 중국전문가포럼 (2026.05.13.), <https://csf.kiep.go.kr/issueInfoView.es?article_id=59605&mid=a202000000000&board_id=0>

19) 임을출 (2016), 앞의 글, p. 4.

20) 김옥 (2026), 앞의 글.

21) 북중 경제협력 '단순 투자'서 '노하우 학습'으로 체질 전환, 데일리NK (2026.07.08.), <<https://www.dailynk.com/20260708-1/?tzt=1>>

22) 원동욱, "138년의 기다림, 사진평이 평양에서 열어젖힌 '동해 15km의 빗장'", 유코리아뉴스(2026.06.11.), <<https://www.ukore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977>>

23) 김옥 (2026), 앞의 글.

24) "북 경제 회복세, '중국·전쟁' 의존 등 구조적 약점", 자유아시아방송 RFA (2026.07.06.), <<https://www.rfa.org/korean/in-focus/2026/07/06/economy-war-ukraine-china-navy/>>

25) 北 시장 곡물 가격·환율 동반 급등...주민 물가 부담 더 커졌다, 데일리NK (2026.08.05.), <<https://www.dailynk.com/20260805-5/>>

동 영역을 축소하고 대규모 임금 인상 정책을 시행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였지만, 환율 불안과 물가 상승이 임금 인상 효과를 상쇄시키면서 서민들의 생계의 어려움은 완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생존을 위해 가발, 속눈썹 등 임가공 부업에 나서는 가정이 흔하다는 소식도 들린다.²⁶⁾ 과거에는 중국과의 교역 활성화가 비공식 부분을 중심으로 개인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거두었지만, 북한과 중국의 정책 노선이 통제 밖의 경제활동을 억제하는 방향성을 보이는 만큼, 이번 경제협력이 일반 주민들의 생계에는 기대만큼 기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이유이다.

북중 관계의 개선과 경제 협력의 확대는 북한 경제에 새로운 분기점이 되고 있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진 방정식 속에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구하며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을 제안해 본다.

먼저 북한 주민들의 생존과 민생 안정을 위하여 기도하자. 양국의 경제 협력이 정권과 특권층의 외화벌이에만 그치지 않고, 물가 불안과 환율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 서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기도하자. 식량과 생필품의 수급이 원활해지고, 고단한 노동 속에 있는 주민들의 일상에 최소한의 생계 안정과 평안이 주어지기를 기도하자.

선교적 접점의 확대를 위하여 기도하자. 강화된 국경 통제와 디지털 감시 체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새로운 길을 내어주시기를 기도하자. 엄격한 환경이지만 인적 교류와 경제적 접점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복음의 통로가 막히지 않고, 중국 내 노동자들 및 왕래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소망이 전해지는 지혜로운 접점이 마련되기를 간구하자.

마지막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그리고 북한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하자. 북중 간의 전략적 밀착과 지경학적 변화가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기도하자.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절제를 주셔서 갈등 대신 상생과 회복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북한이 통제와 억압을 넘어 주민들의 기본 권리를 존중하는 유연한 변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자. 

26) 물가·환율 급등에 취약계층 직격탄...한 사람만 벌어진 생계 불가능, 데일리NK (2026.08.04.), <<https://www.dailynk.com/20260804-5/>>

칼럼 1

북·중 간 경제 교류협력 확대 : 평가와 전망

임을출 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최근 시진핑 주석을 포함한 북중 고위급 인사들의 상호 방문은 양국 간 외교 및 경제 교류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몇 가지 구조적 의문이 존재한다. 첫째, 사회주의 혈맹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양국의 진정한 정치·외교적 셈법에 대한 의문이다.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다극화 정세를 활용해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 기술을 확보한 만큼, 중국에 지나치게 종속되지 않으면서 경제적 실리만 취하는 등거리 외교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미일 안보 협력에 직면한 중국은 북한이라는 지정학적 완충지대의 안정을 원하면서도, 북·러 군사 밀착으로 인한 동북아 긴장 고조를 제어하기 위해 대북 경제 지원을 주도권 유지와 관리 도구로 활용하려는 셈법을 작용시키고 있다. 둘째, 엄중한 대북 제재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경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효성의 의문이다. 양국은 안보리 결의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IT 원격 노동이나 디지털 서비스 등 무형 자산 교류를 음성적으로 확장하고, 농업·보건 의료 등 인도주의적 예외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금지 물자를 우회 반입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유학·연수 비자를 악용한 해외 노동자 파견 등 제재의 허점을 파고드는 편법적 경제 생태계가 얼마나 고도화될 것인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 셋째, 이러한 협력 양상이 실제 접경 지역에 어떠한 지형 변화와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같은 의문들을 바탕으로 7월 말 중국 단둥 등 북중 접경지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재편되고 있는 양국의 경제무역 관계의 현주소와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올해 초 조중우의교를 건너 북한으로 이동하는 중국 화물차〉

활기가 넘치는 압록강변과 북·중 접경 경제의 체질 변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한 7월 말 중국 랴오닝성 단둥의 압록강변은 북한 땅을 바로 눈앞에서 둘러보려는 각지의 중국인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강변을 따라 늘어선 유람선 선착장은 승선을 기다리는 줄이 이어지고 있으며, 인근 식당과 상점, 숙박시설은 손님들로 만석을 이루며 보기 드문 대목을 누리고 있는 듯했다. 압록강 유람선을 타고 북한 신의주 일대의 선박, 건물, 주민들의 일상을 관람하는 프로그램은 대표적인 관광 상품이다. 이러한 중국 측의 움직임에 발맞추어 북한 역시 자국 지역의 발전상을 과시하고 있었다. '북한'이라는 존재는 단둥 현지의 관광 산업은 물론, 물류·유통·교역·숙박·음식업 등 도시 경제 전반을 회전시키는 결정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양 지역은 이미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호 의존적 '공동이익공동체'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단둥 시내 경제 및 유통 인프라의 절대다수는 북한과의 무역, 물류, 인적 교류 및 관련 서비스업에 직간접적으로 촘촘히 연계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단둥 현지의 소상공인, 무역상, 물류 기사,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북한과의 직간접적 연계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핵심적 기반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단행된 전면적인 국경 봉쇄와 대북 교역·인적 교류의 장기 중단은 단둥 민생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다. 수년 동안 물동량이 끊기면서 관련 종사자들은 강제적인 휴업, 사업 전업, 폐업 위기에 내몰렸으며, 접경지 민간 자영업자 계층이 국가적 방역 통제의 경제적 고통을 온몸으로 감내해야 했다. 이러한 국경 봉쇄기의 극심한 침체는 단둥 경제가 북한과 직결되어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 이는 대북 제재 강화나 국경 봉쇄와 같은 대외적 지경학적 변수가 발생했을 때, 단둥 지역의 민간 민생 경제가 곧바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취약한 구조를 가졌음을 시사한다. 역설적이게도 국경 봉쇄기 동안 단둥 상공인들과 지방정부가 겪어야 했던 극심한 경제적 고통은, 국경 재개 이후 북·중 경제 협력 복원과 신압록강대교 정식 개통 등 물동량 대폭 확대에 훨씬 더 사활을 걸고 적극적으로 임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인(Incentive)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둥 지방정부와 현지 상공인들은 과거의 손실을 보전하고 접경지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신압록강대교 개통, 교역, 임가공, 관광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개통 임박한 신압록강대교와 국가 주도 무역의 증대

북·중 경제 협력 가속화를 눈앞에 둔 현장의 가장 가시적인 지표는 연내 정식 개통을 앞두고 막바지 정비 작업이 한창인 신압록강대교 일대다. 대교 너머 북한 측 진입로에서는 대형 세관과 검역 청사(CIQ), 통게이트를 비롯한 통합 관문 인프라 건물이 위용을 드러내며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중국 측에서는 북한을 오고 갈 300여 대 화물차량의 전산 등록을 이미 마쳤다고 하고, 통관 시스템 연동 작업을 손질하며 대규모 물동량 처리를 준비하고 있다. 현장 관계자들은 신압록강대교가 정식 가동될 경우, 노후화된 기존 '조중우의교'가 가졌던 물류 병목 현상을 단번에 해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북한의 경제 건설과 민생 개선에 투입될 대규모 설비와 건설 자재의 통관 및 공식 물동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현상은 비공식·자율적 밀수 네트워크가 약해지고 양국 당국의 철저한 통제 아래 작동하는 '국가 주도형 제도적 무역 체제'로 재편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다.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에서 활발했던 소규모 민간 무역업자들의 비공식 유통망, 야간 밀수(수산물·약초·금 등), 사적 선박 운항 및 외화 유통은 크게 위축되었다고 한다. 이는 국경 통제 밖에서 이뤄지던 사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양국 당국의 공조 단속 수위가 대폭 높아진 결과로 판단된다. 음지에서 은밀히 이뤄지던 물동량과 과거 국가 주도로 반입되던 특수 물품·차량도 공식 세관 수속을 거쳐 북한 내부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된다고 한다. 이는 중국의 유연해진 대북제재 이행 기조와 맞물려 화색 무역을 양지의 공식 관문으로 흡수하려는 양국 당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반영된 현상일 것이다. 소규모 민간 거래가 감소한 빈자리는 대형 통관 인프라, 당·정·군 산하의 대형 외화별이 기관, 규격화된 물류망을 갖춘 대형 무역상들이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경 재개 이후 접경지 현장에서는 국가 통제하의 공식적이고 대형화된 무역 체제가 새로운 시장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비공식 거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중국 중앙정부의 직간접적 지지와 접경지 지방정부(랴오닝성·단둥시)의 주도 아래, 북·중 경제 협력은 물자 교역을 넘어 '수직적 공급망 통합'과 '제도적 공존 구도'로 고도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듯하다. 북중 모두가 교역에 적극 가세하면서 해관 및 거점 물류 창고 주변으로 반출 대기 화물차량이 늘어나면서 북중



〈신압록강대교 전경〉

국경 전반적으로 물동량이 증대되었다는 것이 현지의 공통된 평가다. 단순한 원자재 및 완제품 수송을 넘어, 신규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이동 행렬이 포착되는 등 노동력 파견과 물자 수송이 정밀하게 연동된 수직적 공급망 체계가 다각도로 심화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북·중 경협은 과거의 비공식·단발성 거래 형태를 완전히 벗어났다. 이제 양국 경협은 국가가 보다 직접적으로 관여하면서 규격화된 통관 시스템과 현대적 인프라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구조적·체계적 공존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신의주의 고층 살림집 건설과 북한산 소비재의 중국 시장 진출

중국 단둥 맞은편 압록강변에서 건너다본 신의주 시내 모습은 과거의 칙칙하고 정체된 관문 도시의 이미지를 크게 벗어던지고 있다. 강변을 따라 자리 잡은 전통적인 수변 공장과 물류 하역 시설 바로 뒤편으로 20~30층 안팎의 고층·중층 살림집(아파트)과 공공건물들이 뽐뽐하게 들어서며 수변 스카이라인을 가파르게 바꿔놓고 있다. 원형과 유선형을 살린 파스텔톤의 현대적 외관 디자인은 단둥 측의 외부 시선을 철저히 의도한 대외 홍보형 개발임을 보여준다. 대북 제재와 국경 봉쇄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국가 예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무역회사 자본과 자금력을 갖춘 돈주(부동산 투자자)들의 자금이 수변 개발로 대거 유입된 결과로 보여진다. 지금도 여전히 속도전 공사가 밤낮없이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현지 북한 방문자의 말에 따르면 화려한 외관과 야간 조명 뒤편에는 여전히 내부 마감 미비, 전기 및 상하수도 등 기초 인프라 부족, 촉박한 공기로 인한 구조적 품질 저하 가능성이라는 그들이 함께 공존하는 모습이다.

압록강 수면 위에서는 북한 측 준설훼선과 바지선들이 밤낮없이 강모래를 채취해 연안으로 끊임없이 실어 나르는 광경이 목격된다. 채취된 모래가 강변에 수북이 쌓이기 무섭게 대형 트럭들이 진입해 건설 현장으로 이를 분주히 운송하고 있다. 눈여겨볼 점은 과거 이 강변 공간을 뽐뽐하게 채우고 있던 대중 수출용 석탄 적치물 대신 모래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물류 현장의 변화는 지하자원 수출 중심이었던 기존의 국경 물동량 체제가 내부 자원 활용 체제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신의주를 비롯해 국가적으로 전개 중인 대규모 살림집 및 도시 건설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북한 당국이 기초 건축 자재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음을 현장에서 명확히 시사한다.

단둥 시내로 들어서면 북한산 상품을 취급하는 전용 매장과 유통 점포 수가 눈

에 띄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 개성고려인삼, 평양소주, 약재류 등 단순 기념품 수준에 머물렀던 매장 진열대는 최근 화장품, 과자, 즉석국수, 커피강정, 다종화된 맥주 브랜드 등 다채로운 상업성 소비재들로 가득 차 있다. 특히 맥주 라인업의 다변화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기존의 대동강맥주 단일 품목을 넘어 평양·봉화·금강·룡성맥주는 물론, 지방 공장에서 생산된 두만강·파도·묘향맥주까지 상점 전면에 내걸렸다. 제품군 역시 밀맥주, 과일향 맥주 등으로 세분화되었으며, 세련된 용기 포장과 라벨 디자인을 갖추어 중국산 제품과도 일정 수준 시장 경쟁을 펼칠 정도의 품질 개선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단둥 현장에서 포착되는 북한 상품의 양적·질적 변화는 최근 북한 내부 경제 정책의 구조적 전환이 국경 유통망을 통해 가시화된 결과다. 첫째, 김정은 정권이 강조해 온 '국산화·다품종·소량생산' 원칙과 '지방발전 20×10 정책'이 실제 지방 공장에서의 다채로운 제품 생산과 브랜드 다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둘째, 광물과 수산물 등 전통적 주력 품목이 대북 제재망에 막히자, 북한 당국은 제재 저촉 수위가 낮고 민생용으로 분류되는 식음료 및 경공업 제품군을 새로운 외화 벌이 창구로 적극 파편했다. 중앙집권적 통제 속에서 대내 지방 산업 육성과 대외 실리적 상업주의를 결합한 전략이다. 셋째, 접경지역 내에서 북한산 소비재가 단순한 '분단 관광 기념품' 단계를 넘어 독자적인 상품성과 경쟁력을 갖춘 '일상 소비재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다. 비록 중국 현지 제품 대비 높은 가격대와 포장 재료 수급 불안이라는 한계가 존재하지만, 완성형 소비재의 포장과 브랜딩을 강화해 대중 수출 판로를 넓혀가는 북한 당국의 국가 주도형 교역 전략을 현장에서 생생히 읽을 수 있다.



〈단둥 상점에서 판매하는 각종 북한 과자(출처: SNS)〉

수해 복구 지역 위화도의 재탄생: 대중 수출형 농장과 수변 야경의 변신

중국 단둥 맞은편 압록강 위화도 일대를 바라보면, 지난해 휩쓸고 간 대규모 수해의 상흔 대신 빼곡하게 들어선 대규모 현대식 온실농장 단지가 중국인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현지 상인들에 따르면, 수해 복구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조성된 이 온실농장에서 재배된 깻잎과 상추 등 신선 채소류는 북한 내부 내수용으로 공급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국경을 넘어 중국 단둥 등 접경지역으로 신속히 수송·



〈위화도에 건설되고 있는 종합온실 농장과 살림집 (사진=노동신문)〉

수출되어 북한 당국의 쓸쓸한 외화벌이 창구 역할을 하고 있음이 현장 취재를 통해 확인된다. 수해 피해 지역이었던 위화도를 단기간에 대중(對中) 수출형 신선 농산물 생산 기지로 재편한 것은, 북한이 단순한 재해 복구를 넘어 중국 측의 신선 식품 수요를 겨냥한 '전략적 외화벌이 농업 특구'로 위화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압록강 수변을 따라 눈길을 돌리면 줄지어 들어선 대규모 신축 건물들과 동쪽 원경까지 길게 늘어선 고층 건물군이 위용을 자랑한다. 철쭉 같은 어둠이 깔리던 과거와 달리, 밤이 되면 이들 건물에서 화려한 야간 조명이 뿜어져 나와 압록강 수면을 밝히는 장면이 지속적으로 관측된다. 중국 단둥에서 정면으로 육안 조망되는 압록강변에 현대식 주택군을 배치하고 화려한 조명을 비추는 현상은, 자연재해 극복 성과와 국가적 건설 치적을 대외에 과시하기 위한 북한 당국의 계산된 '수변 경관형 체제 선전(Showcase)' 전략이 내포되어 있는 듯했다. 단둥 측의 화려한 도시 야경에 밀리지 않는 시각적 연출을 통해 관문 도시로서의 위상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현장에서 명확히 읽힌다.

수해로 유실되었던 위화도 일대가 대규모 온실 단지과 고층 주거지로 단기간에 신속히 변모한 배경에는 국가적 우선순위 과제에 건설 인력과 자원을 신속히 결집한 중앙정부의 강력한 동원력이 자리 잡고 있다. 이는 북한 당국이 국경 접경지의 토지 이용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단둥과 신의주를 잇는 접경 공간은 단순한 물류와 교역의 통로를 넘어, 도시 경관과 상업적 연계성 측면에서도 양국이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 의존적 공존 구도를 한층 심화시켜 가고 있다. 과거 수해의 상흔을 지워낸 위화도와 압록강변은 대중 외화벌이와 체제 선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북한 당국의 국경 지역 재편 전략을 잘 보여준다.

북한의 대중 실용주의 전략: '경제적 실익'과 '체제 통제'의 투트랙

2026년 6월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과 7월 조중우호조약 체결 65주년 이후, 북·중 접경지인 라오닝성 일대는 고위급 교류와 대북 투자 시찰단 방문이 잇따르며 고조된 밀착 분위기가 감지된다. 그러나 교역과 투자 방식이 체계화된 국경 현장에서는 협력의 폭과 속도를 둘러싼 양국의 동상이몽과 온도 차도 미묘하게 드

러나고 있다. 단둥을 비롯한 중국 지방정부는 신압록강대교 정식 개통, 호시무역구 활성화, 양방향 유통망 확장, 중국인 관광객의 방북 재개, 지방 단위 투자 유치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는 팬데믹과 제재로 침체되었던 접경지 경제를 회복시키는 동시에, 동북 3성과 북한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으려는 지정학적·경제적 계산이 반영된 결과다. 반면 북한은 중국인 관광객의 대규모 유입이 가져올 정치·사회적 여파와 외부 사조 유입에 따른 체제 이완을 여전히 경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광 개방과 비즈니스 목적 외 인적 교류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속도를 조절하면서, 국가 통제 세관을 통한 필수 설비·자재 반입과 자국산 경공업품·농산물·주류 등의 대중 수출 극대화라는 실리적 목적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러한 현장의 움직임은 북한이 대중 경제 의존 심화와 인적 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관리하기 위해 '상업적 실익 흡수'와 '체제 내부 통제'라는 두 트랙을 철저히 분리하여 구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본·물자·선택적 외화 수입 등 경제적 이익은 흡수하되, 관광객 개방을 포함한 인적 교류의 범위와 속도는 자국 주도로 엄격히 통제하는 실용주의적 대외 행보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

북중 접경지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공식·비공식 경제 활성화와 국가 주도의 무역 확대, 그리고 이에 따른 외화 수입이 북한 서민의 실질적인 삶과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정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한 과제다. 핵심은 정권이 임가공 무역과 해외 노동자 파견 등으로 확보한 막대한 외화 유동성이 서민 복지나 공공 인프라 구축으로 얼마나 환원되고 있는가이다. 그러나 이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 등 군수 산업, 평양 중심의 과시성 주택 건설, 정권 핵심 지지층을 위한 통치 비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외화 수입의 증가가 일반 노동자와 농민의 실질 소득 증대나 삶의 질 향상으로 직접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는 듯하다. 오히려 중국 무역 자본과 독점적으로 연계된 신흥 자본가 계급인 '돈주'와 국경 통제권을 쥔 당·정·군 간부층이 북중교역에서 발생하는 이권을 독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대북 제재 국면에서 증가되고 있는 북중 간 무역과 경험은 임가공 하청, 관련 서비스업(운송, 숙박, 유통 등)이 활성화되면서 서민에게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낙수효과는 제공하지만, 북한 사회 내부의 부의 편중과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

다시 가까워지는 북한과 중국, 경제협력은 어디로 갈까?

김규철 교수 (이화여대 북한학과)

2026년 6월 북중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다. 양국 정상은 경제·무역, 농업, 건설, 과학기술,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국경 통상구와 항공노선, 국제여객열차를 정상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북한 박태성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고 중국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는 등 고위급 교류도 이어졌다. 북중 간 물자 교류도 늘어나고 있다. 중국 해관자료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북중 교역액은 약 1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가량 증가했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본격화된 2018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¹⁾. 이렇듯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다양한 부문에서 개선되고 있는 모양새이지만 각자가 기대하는 목표와 속도에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또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관계도 중국의 대북정책에 새로운 전략적 고려를 더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중 경제협력의 향후 모습을 전망하기 위해 네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과 중국은 각각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대북제재 하에서 실제로 가능한 경제협력은 무엇인가. 북러 밀착은 북중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북한 주민의 경제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1) 「상반기 북중 교역액 15억 달러…2017년 이후 9년 만에 최대」, 『동아일보』, 2026년 7월 21일.

경제 회복과 국가 통제력 강화를 동시에 원하는 북한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로 기대하는 것은 경제 회복이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외화와 에너지 그리고 군사 분야의 지원을 얻고 있지만, 러시아만으로 북한경제 전반의 수요를 충족하기는 어렵다. 산업 생산에 필요한 기계와 부품, 원자재와 중간재는 물론이고, 식량·의류·의약품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소비재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반입된다. 북한 당국이 지역 간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방발전 20×10 정책’도 중국산 설비와 원자재의 공급 없이는 원활하게 추진하기 어렵다. 북한의 대중 수입 증가는 단순한 소비재 수요뿐 아니라 지방공장과 국영 유통망을 복원하려는 정책과도 연결되어 있다²⁾.

두 번째 목표는 수출 확대를 통한 외화 확보와 생산기술 도입이다. 제재 이전 북한의 주요 수출품에는 석탄·철광석 등 광물, 수산물과 농산물처럼 자연에서 채취하거나 생산한 상품이 상당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낮은 노동비용을 이용한 임가공 상품도 주요 수출품이었다. 그러나 제재로 해당 품목의 수출이 금지되면서 북한 당국은 제재와 무관한 새로운 상품을 발굴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원료를 그대로 수출하기보다 중국의 설비와 기술을 도입해 북한에서 가공한 뒤 더 높은 가격에 수출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³⁾. 북한으로서는 원료만 판매할 때보다 더 많은 외화를 얻고, 중국의 생산기술과 품질관리 방식을 습득할 수 있다.

셋째로 북한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국가의 경제통제력을 강화하는 데 활용하려 한다.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국가기관의 허가를 받은 여러 무역 회사와 개인 상인, 밀수업자들이 공식, 비공식 교역에 참여했다. 그러나 코로나19 기간 북한 당국은 무역과 외화, 시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당국의 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무역법을 개정하였고, 최근에는 밀무역까지 국가가 장악하며 수출입 품목과 통관 절차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⁴⁾. 또한, 식량 유통에서도 국영 식량판매소의 역할을 키우려 한다. 당



〈중국 단둥 조중우의교 입구에서 북한 신의주로 가기위해 대기 중인 화물차〉

2) 최장호·최유정, 「2025년 북중 무역 평가: 국가 유통망의 복원과 무역 적자의 심화」,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26권 제7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 「원료 수출에서 부가가치 가공품 수출로 전환…외화벌이 체질 개선」, 『DailyNK』, 2026년 8월 12일.

4) 김규철, 「2024년 북한의 대외 경제 평가와 향후 전망: 중북 무역과 러북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KDI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연구원, 2025년 1월.

국으로서는 중국에서 식량과 소비재를 들여오는 것뿐 아니라, 그것을 국가가 관리하는 유통망을 통해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북중 경제협력이 국가 주도의 무역·유통 체계를 복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한의 안정과 영향력 유지를 원하는 중국

중국의 우선적인 목표는 북한과 한반도의 안정이다. 중국은 북한이 경제적으로 번영하여 자국의 영향권에서 이탈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북한경제의 급격한 악화로 대량 탈북이 발생하는 등 국경의 치안이 불안정해 지거나 한반도의 긴장 상태가 고조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 체제가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기를 원한다.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지나치게 밀착해 자국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상황도 경계한다. 북한은 러시아에 포탄과 미사일은 물론 병력까지 파견하면서 강력한 외교·군사적 후원자를 확보했다. 물론 러시아가 중국을 대신해 북한의 경제적 수요를 상당 부분 채워주는 것은 어렵지만, 북러 밀착은 북한이 중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해야 했던 관계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중국의 북핵 관련 입장은 다소 모호하다. 중국은 2016-17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동참했으며 현재도 공식적으로는 해당 결의를 이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제재 집행은 엄격하지 않거나 선택적이라는 지적도 받는다. 중국은 대북제재가 추가로 강화되거나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수단이 되는 것에도 반대한다. 그렇다고 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계속 커지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군사력 확대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 및 주변 지역에 전개되는 명분이기 때문이다. 한 연구자는 이러한 중국의 목표를 북한의 무제한적 능력 강화의 수용이 아니라 “체제 불안과 북러 편중을 막을 정도의 통제된 안정화”로 설명한다. 북한은 과학기술과 산업 현대화, 나아가 군사 분야의 협력까지 원하지만, 중국은 교역·교통·농업·보건·교육·도시관리처럼 제재 위반 가능성이 낮은 분야를 앞세우고 있다는 것이다⁵⁾.

5) 이재영, 「북중 고위급 상호 방문 교류 성과와 한계: 북한의 과학기술 수요와 군사협력의 불확실성」,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026-52, 2026년 7월 23일.

대북제재 아래 북중 경제협력은 어떻게 될까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는 정황이 확인되면서 제재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대북제재 결의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 러시아가 2024년 대북제재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을 거부한 것도 제재를 폐지한 것이 아니라 제재 이행을 감시하던 기구의 활동을 중단시킨 것이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강대국의 모습을 유지하고자 한다. 따라서 대북제재 역시 UN 체제하에서 공식적으로 준수하고 있다. 따라서 제재가 유지되는 한 북중 경제협력이 대규모 투자나 산업단지 개발의 형태로 확대되기는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중 경제협력은 당분간 다음과 같은 분야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첫째, 우선 순위가 높은 분야는 식량·비료·의약품과 같은 인도적 지원 관련 품목, 그리고 일반 소비재의 교역이다. 해당 품목은 대부분 제재 대상이 아니며, 제재 대상인 품목일 경우라도 인도적 지원 품목인 경우 UN 제재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북한 반입이 가능하다. 둘째는 농업, 보건, 교육과 같은 제재 위반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분야의 기술협력과 인력 교류이다. 종자 개량, 온실과 관개시설, 방역과 의료교육, 도시 상하수도 시설 개선 등은 상대적으로 중국이 부담 없이 제안할 수 있는 분야이다. 북한도 이를 ‘지방발전 20×10 정책’과 연계시켜 활용할 수 있다. 셋째는 중국의 설비 및 원자재와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위탁가공이다. 중국 기업이 원자재를 제공하고, 북한의 공장이나 작업반이 생산한 뒤, 중국이 해외로 수출을 하는 방식이다. 국경 개방 이후 주요 수출품으로 급부상한 가발, 가수염, 휴대용 시계와 같은 제품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넷째는 관광 확대와 인적 왕래의 회복이다. 관광 자체가 유엔 제재에 의해 포괄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관광 대금이 제재 대상 기관이나 군수 부문으로 흘러갈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2026년 3월 북중 국제여행열차와 베이징-평양 항공노선은 재개됐다. 그러나 8월 중순 현재 일반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북한 단체관광은 공식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 중국 여행사들이 북한 관광상품을 홍보하고 예약을 받기도 했지만 실제 관광단 출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북한이 관광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외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이전 외국인 관광객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중국



〈2026년 6월 8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2019년 북한을 방문한 중국관광객들이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VOA)〉

관광객의 복귀가 필수적이다⁶⁾. 따라서 중국인 단체관광의 재개 여부는 앞으로 북중관계의 진전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러시아 변수: 안보는 러시아, 경제는 중국인가

북한은 과거 ‘시계추 외교’와 같이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협상력을 높이려 한다. 최근 북러 밀착은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복원하려는 데 영향을 준 요인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북한은 군수물자 제공과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식량과 에너지, 군사기술을 얻은 것으로 파악된다. 게다가 러시아 외무장관의 발언을 통해 핵보유에 대한 ‘사실상의 정치적 용인’이라는 외교적 지지까지 얻어냈다⁷⁾. 중국은 6월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언급하지도 않았지만, 북한을 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도 않았다. 북한의 핵과 군사력 강화에 정당성을 제공한 러시아와는 달리 중국은 비핵화 문제를 뒤로 미룬 채 경제와 민생 협력을 강조하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현재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지원은 그 성격이 뚜렷하게 다르다. 러시아는 북한산 무기를 구매하고 북한을 군사·외교적으로 뒷받침하는 반면, 중국은 식량과 소비재, 산업용 설비·부품, 생산기술과 수출시장을 제공하며 북한경제 전반을 지탱하고 있다. 북한은 성격이 다른 두 관계를 동시에 활용해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협상력을 높이려 한다.

그러나 ‘러시아는 군사, 중국은 경제’라는 구분이 두 관계가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는 뜻은 아니다. 러시아의 무기 주문이 늘어나 북한 군수공장의 생산이 확대되면 공작기계와 전기·전자부품, 화학 원료, 운송장비 등의 수요도 함께 증가한다. 북한이 이러한 물자를 자체적으로 모두 생산하기 어려운 만큼, 일부는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 조달할 가능성이 크다. 민수용으로 수입한 중국산 기계와 부품도 용도에 따라 군수 생산에 이용될 수 있다. 반대로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으로 확보한 외화와 에너지는 중국산 산업재와 소비재를 수입하거나 일반 공장을 가동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처럼 북러

군사협력은 북중 교역을 확대하는 요인이 될 수 있고, 중국의 대북 경제협력은 결과적으로 북러 군사협력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할 수도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공식적인 삼각 협력체계를 만들지 않더라도, 북한을 매개로 세 나라의 경제적·군사적 관계가 서로 맞물릴 수 있는 것이다.

북한 주민에게 돌아갈 몫은 얼마나 될까

북중 경제협력의 확대는 북한 주민에게 긍정적인 가능성을 제공한다. 중국에서 식량과 생필품이 수입되면 장마당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소비가 증가한다. 임가공 교역이 증가하면 북한 노동자들에게 일자리와 소득이 생기게 된다. 농업과 보건, 의료 분야의 기술과 인력 교류가 지방발전 정책과 연계된다면 낙후된 지역 주민의 생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북중 교역의 확대가 곧바로 북한 주민의 생활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교역 규모뿐 아니라 어떤 품목이 수입되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자료와 현지 보도에 따르면 기계설비와 건설자재의 수입은 늘어난 반면, 곡물을 비롯한 식량과 일부 생활소비재의 수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⁸⁾. 물론 곡물 수입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북한의 식량 사정이 악화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민생과 직접 관련된 품목의 수입이 줄어드는 가운데 시장의 식량 가격까지 상승한다면, 무역 확대의 혜택이 주민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고난의 행군 이후 많은 북한 주민은 장마당을 통해 식량과 생필품을 구하고 생계를 유지해 왔다. 김정은 집권 이후 비교적 잘 운영되던 장마당에서 최근 우려할만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바로 환율과 물가의 급등이다. 북한의 내부 소식을 전하는 매체(DailyNK)에 따르면 8월 1일 평양의 쌀값은 1킬로그램당 45,000원으로 해당 매체가 2009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날 평양의 시장환율은 1달러당 67,100원이었고 다른 지역의 쌀 가격과 환율도 큰 폭으로 올랐다. 지난 시기의 쌀값이 대략 1킬로그램당 5천~6천 원대, 환율이 1달러당 8천 원 안팎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주민이 느끼는 부담은 매우 크다. 이처럼 환율과 물가가 급등하면 북한 주민의 실질구매력이 떨어지며, 특히 외화보다 북한 원화를 주로 사용하는 저소득층이 더 큰 타격을 받는다.

6) 이상근, 「중러 대상 북한 외래 관광에 대한 평가와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연구원, 2025년 6월호.

7) 「Russia vows support for North Korea's nuclear, military buildup」, 『NK News』, July 23, 2026.

8) 「시장 쌀값 또 최고치 경신…북중 무역 확대 영향으로 환율도 우상향」, 『DailyNK』, 2026년 7월 23일.

신뢰와 평판으로 연결되는 북중 접경지역의 비공식 무역¹⁾

백명숙 (숭실평화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산업 생산의 증가가 주민 생활의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한국은행 추정에 따르면 북한경제는 2023년 3.1%, 2024년 3.7% 성장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중화학공업과 건설업은 각각 19.6%, 21.5% 성장한 반면, 주민의 식량과 소비생활에 밀접한 농림어업은 1.0% 감소했고 경공업은 거의 성장하지 못했다⁹⁾. 북러 군사협력을 분석한 연구도 주요 군수 연관 기업의 경제활동은 뚜렷하게 증가했지만, 이러한 효과는 군수와 관련이 없는 기업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¹⁰⁾. 이는 최근 북한경제의 회복이 군수산업과 중화학공업, 국가 건설사업에 집중됐으며, 그 성과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수경제 전반으로는 충분히 확산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최근 북한경제는 중국 및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성장세를 보이지만, 그 성과가 주민 생활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중 구조가 나타날 수 있다. 대중 무역과 공장 생산이 늘더라도 쌀값과 환율이 상승하고 소비재 부족이 계속된다면, 주민들의 실질구매력과 생활 형편은 나아지기 어렵다. 

1. 들어가며

북한과 중국 사이에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따라 1,352km에 달하는 긴 국경이 형성되어 있다. 이 지역은 통상구와 세관을 중심으로 국가 간 공식무역의 주요 무대인 동시에 다양한 유형의 행위자들이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물품과 정보를 주고 받는 삶의 터전이기도 하다. 특히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공식적인 무역거래의 경로에 제한이 생기면서 북중 접경지역의 비공식 무역은 단순한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 북한의 시장화를 견인하는 핵심적인 공간으로 부상했다²⁾. 주민들의 소규모 물물교환으로 시작된 이 지역의 비공식 무역은 국제사회의 감시와 국가의 단속에도 끈질기게 살아남아 북한 전역으로 유통 네트워크를 확장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렇다면 공식적으로 계약을 집행하는 제도가 부재하거나 기능하지 않는

9) 한국은행, 「2025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보도자료, 2026년 7월 31일.

10) 김규철, 남진욱 “북러 밀착이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 2025.

1) 이 글은 필자가 국제정치논총 66권 1호에 게재한 논문을 축약 및 수정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힙니다(백명숙, 김성배, (2026). 신뢰와 평판에 기초한 비공식 무역의 거버넌스 : 북중 접경지역 도시들에서 관찰된 화교와 조선족 민족 중개인의 역할 분석. 국제정치논총, 66(1), 253-304).

2) Lesser 와 Moisé-Leeman(2009)에 의하면 제재로 인해 무역 참가자들이 양국의 무역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또는 양국에서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은 비록 합법적으로 생산된 상품 및 서비스의 거래이더라도 비공식 무역으로 간주된다. 즉, 이러한 무역은 비록 국가기관이 관여하더라도 정부가 정한 규제의 틀을 벗어나고 특정한 세금이나 규제의 부담을 회피하는 행위인 만큼 비공식 무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북중 접경지역에서 일어나는 무역행위의 대부분은 비공식 무역이라 할 수 있다(Hastings and Wang, 2018).

북중 접경지역에서 수많은 행위자들은 어떻게 원거리 거래의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 글은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공식제도의 공백을 메우는 비공식 제도로서의 무역 거버넌스를 서술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특히 화교와 조선족이라는 민족 중개인들이 ‘신뢰’와 ‘평판’이라는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형성하고 확산시켜서 자생적인 비공식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규명하는 것이 이 글의 문제의식이다.

2. 이론적 배경: 비공식 거버넌스의 신뢰와 평판

공식적 계약 집행이 불가능한 환경에서 원거리 무역의 성패는 행위자 간의 신뢰(Trust)와 평판(Reputation)에 달려 있다. Greif(1989, 1993)가 강조한 바와 같이, 비공식 거버넌스는 행위자 간의 반복적인 관계를 통해 축적된 도덕적 기대에 기반한다. 이 글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기제로 해석한다. 첫째, 귀속적 신호의 활용이다. 일반적으로 언어와 문화가 다른 두 국가 간 접경지대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극도로 높기 마련이다. 이에 행위자들은 거래에서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혈연, 민족, 출신지역 등 선천적인 특성을 상대방을 식별하는 신호로 활용한다. 이러한 귀속적 신호는 위조가 불가능하기에 거래의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선별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준다(Spence, 1973). 둘째, 평판 메커니즘과 네트워크 내에서의 퇴출 원리이다. 평판은 집단 내에서 축적된 과거 거래 이력의 총합이고, 이러한 평판 메커니즘이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확산 속도가 상인의 이동 속도보다 빨라야 한다. 한편, 접경지역 비공식 무역에서 통신키술의 발달은 평판 정보를 네트워크 내에 즉각적으로 유통시키고 상호 간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제어한다. 만일 어떠한 행위자가 거래 공동체에서 통용되는 규범을 위반하거나 신뢰를 저버린다면, 그는 네트워크 내에서 퇴출되어 사회적 낙인과 다름없는 강력한 제재를 직면하기 때문이다.

3. 북중 간 초국경 네트워크에서 민족 중개인의 역할

화교와 조선족으로 구성된 민족 중개인은 북중 비공식 무역에서 단순한 매개자를 넘어, 신뢰 생태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가교의 역할을 한다. 우선 이들은 북한과 중국 양국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있고, 양쪽 사회에 형성된 사회적 관계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 상인과 중국 시장 사이의 신뢰를

구축한다(강주원, 2012; 이상숙, 2017; 정수열 외, 2017; 김성배, 2025). 특히 이들은 폐쇄적인 북한 내부망과 외부세계를 연결하며, 양측의 거래 보증인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런가 하면 북중 접경지역의 민족 중개인은 금융과 물류를 통합하고 관리하는 역할도 한다. 양국을 비교적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다는 신분을 통해, 민족 중개인은 단순히 물자를 운송하는 것을 넘어서 환치기를 통한 가치 이전, 현금 흐름의 관리, 선금금 조정 등 개인은행의 역할을 한다. 이는 대북 제재 상황에서 거래에 필요한 자금이 동결되지 않도록 위험을 분산시키는 필수적인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이들은 북중 접경지역의 비공식 무역 네트워크 안에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판을 확산시킴으로써 거래 질서를 수호한다. 특정 중개인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곧 국경을 넘나드는 무역 생태계 전체에서의 활동 불가능을 의미하므로, 이들과 연결된 상인들은 네트워크의 규범에 강력하게 순응하게 된다.



〈압록강변 북한 국경경비대원들이 배에서 짐을 내리는 주민들을 지켜보고 있다.〉

4. 북중 접경지역 비공식 무역의 신뢰 형성과 평판 정보의 작동

앞서 언급하였듯이 비공식 무역에서는 법적 계약서의 효력을 기대하거나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의 보증을 받기 어렵다. 이때 거래 당사자들은 상대방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판단하기 위해 귀속적 신호를 정보로 활용한다. 예를 들어 신의주 출신의 상인이 단동의 특정 거래자와 연결되고, 회령 출신의 상인이 연변이나 용정 지역의 동향 사람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들이 동일한 지역의 출신이라는 사실은 단순한 친밀감 이상의 의미를 갖는데, 거래를 어길 경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척, 고향 공동체까지 평판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압력은 상대방을 검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이고 거래를 지속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담보가 된다.

또한 친족, 이웃관계가 겹쳐 있을수록 그 신뢰는 더욱 강해진다. 거래 상대방이 단순한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 가족의 지인이거나 같은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면, 거래 불이행으로 잃게 되는 것은 단순히 자산만이 아니다. 가족관계, 지역사회에서의 평판, 향후 자금 조달 기회까지 동시에 잃을 수 있다. 결국 비공식 무역에서 사회적 관계는 계약서와 보증인을 대신하는 일종의 사

회적 담보로 기능한다.

신뢰가 주로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작동한다면, 평판은 한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여러 거래자에게 공유되는 과정에서 작동한다. 하지만 모든 소문이 곧바로 신뢰할 만한 정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지역의 비공식 무역에서는 특히 부정적인 정보일수록 가족, 친지, 오랜 동료와 같은 강한 유대망을 통해 전달될 때만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다. 가령 낯선 사람이 사기를 쳤다는 이야기를 단순한 경쟁자의 험담으로 들으면 거래를 중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 정보가 가족이나 오랜 거래 파트너를 통해 전달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거래 장부에서 이름이 삭제되거나, 해당 인물과의 거래를 중단하거나, 그를 소개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사적인 방식으로 제재가 이루어진다. 이처럼 평판 정보는 무차별적으로 퍼지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거치는 선택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확산되며, 휴대폰과 같은 통신기술은 이 과정을 더욱 빠르게 만든다. 북중 접경지역에서 국경을 통과할 때 직면하는 검문, 열악한 교통망 때문에 상인과 물자의 이동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중국산 휴대폰을 통한 정보는 물자보다 훨씬 빠르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이다(최선경, 2021). 그래서 새로운 상인이 어느 지역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그 사람의 과거 거래 이력이 이미 알려질 수 있다. 결국 북중 접경지역의 비공식 무역에서는 ‘누구의 소개로 왔는가’를 확인하고, 즉시 거래하지 않은 채 신원과 평판을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해진다.

5. 폐쇄된 시장의 제재와 한계

비공식 무역에서 신뢰와 평판이 실제로 거래 질서를 유지하려면, 약속을 어긴 사람에게 불이익이 가해져야 한다. 그러나 공식적 제도를 통해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거래 중단, 네트워크 배제, 공동체적 비난과 같은 비공식 제재가 그 역할을 한다. 예컨대 북중 접경지역의 시장은 하나의 개방된 시장이라기보다 수산물, 광물, 약초, 생활용품 등 품목과 지역에 따라 여러 거래망으로 나뉘어 있다. 각 거래망은 내부적으로 높은 신뢰를 제공하지만 외부인에게는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하나의 거래망에서 신뢰를 잃은 사람이 다른 거래망으로 쉽게 이동하기 어려운 까닭에, 네트워크에서 퇴출되는 것은 사실상 경제 활동의 기반을 잃는 것과 같다. 이러한 폐쇄성은 비공식 무역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심각한 한계도 낳는다. 기존 구성원 사이의 신뢰는 강화되지만 새로운 사람의 진입은 제한된다. 또한 네트워크의 지도자나 중개인에게 권력이 집

중될 가능성이 커지고, 구성원들은 부당한 요구가 있더라도 다른 선택지가 부족해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신뢰와 평판은 비공식 무역을 작동시키는 힘인 동시에 거래를 폐쇄적이고 불평등하게 만들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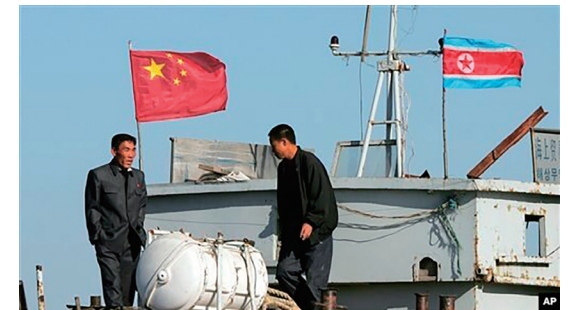
6. 화교와 조선족의 서로 다른 역할

화교와 조선족은 모두 북한과 중국을 연결하는 민족 중개자이지만, 신뢰와 평판을 구성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화교는 북한 내부에 거주하거나 북한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린 관계를 활용한다. 북한 내 주거지, 가족, 재산, 지역사회와의 연결은 이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로 기능한다. 그런가하면 조선족은 북한 주민과 언어와 문화적으로 가까우면서도 중국 내 자본과 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따라서 조선족은 북한 주민과 중국 상인 사이의 언어적, 문화적 장벽을 낮추고, 국경을 넘어 자본과 정보를 이동시키는 역할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수행한다.

두 집단은 부정적 평판을 처리하는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화교 네트워크에서는 북한이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촘촘한 구전과 공동체적 감시가 중요하게 작동한다. 반면 조선족 네트워크에서는 국경을 넘나드는 정보망과 거래 배제, 자본 접근 차단 등이 더 중요한 제재 수단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집단 모두 민족적, 혈연적, 지역적 관계를 활용해 공식 제도의 공백을 메운다는 공통점이 있다.

7. 맺음말

북중 접경지역의 민족 중개인들은 대북 제재와 공식적 제도의 공백 속에서도 자신들이 가진 사회적 관계와 정체성을 활용해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어낸다. 결국 국제사회가 북한으로 향하는 자본과 물자의 경로를 아무리 통제한다고 할지라도 이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이 지역의 비공식 무역의 작동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는데, 바로 전통적 신뢰와 평판 메커니즘이 붕괴되고 새로운 메커니즘이 부상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2020년 1월에 시작된 북한의 국경 봉쇄는 비공식 무역 생태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다. 국경이 막히고 인적 왕래가 끊어지면서 화교는 중국



으로 나갈 수 없어서 물류 기능을 상실했고, 조선족은 북한 파트너를 만날 수 없어 브로커 기능을 상실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살아남은 화교와 조선족은 거대 자본과 결합된 기업형 밀수 네트워크나 국가기관과 결탁한 반관반민 형태의 무역에 참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만성적인 자원 부족과 압제적 관료제의 비효율성은 초기의 비공식 무역 형성에서와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신뢰와 평판에 기초한 비공식 네트워크를 붕괴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북중 접경지역은 여전히 비공식 제도의 실험실이 되는 것이다. 화교와 조선족은 그 실험실에서 가장 적응력이 뛰어난 생존자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억압된 제도 사이의 틈새를 찾고, 제도가 비어있으면 그것을 신뢰로 채워가면서 진화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경향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 강주원. (2012). 중·조 국경 도시 단동에 대한 민족지적 연구: 북한사람, 북한화교, 조선족, 한국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박사학위 논문.
- 김성배. (2025). 법 없이 이루어지는 무역의 거버넌스: 해산-장백현 지역의 동포(조선족) 중개인(middleman)의 역할. 북한도시브리프, (20), 1-7.
- 이상숙. (2017). 중국-북한의 시장 네트워크와 제재 이후 북한화교의 역할 (IFANS 주요국제문 제분석 2017-58).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 정수열, 김민호, 지상현, 이승철. (2017). 북중 무역에서 정체성 저글링: 중국 단둥 소재 조선족 무역상을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0(3), 353-366.
- 최선경. (2021). 북한 주민의 휴대폰 사용과 시장 활동에서의 '신뢰' 네트워크. 현대북한연구, 24(1), 7-40.
- Greif, A. (1989). Reputation and coalitions in medieval trade: Evidence on the Maghribi traders.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49(4), 857-882.
- Greif, A. (1993). Contract enforceability and economic institutions in early trade: The Maghribi traders' coalition.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83(3), 525-548.
- Hastings, J. V., & Wang, Y. (2018). Informal trade along the China-North Korea border.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18(2), 181-203.
- Lesser, C., & Moisé-Leeman, E. (2009). Informal cross-border trade and trade facilitation reform in Sub-Saharan Africa (OECD Trade Policy Papers No. 86). OECD Publishing.
- Spence, M. (1973). Job market signaling.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7(3), 355-374.

탈북민 수기: 김정직 목사

제 9화

다시 중국 땅을 밟았을 때 저는 이전에 강을 넘었던 것과는 다른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먹고 살 궁리를 하며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자 내 힘으로 이 강을 넘었었는데, 제가 다시 이렇게 무사히 중국 땅을 밟을 수 있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몸소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동생과 저는 곧바로 도문교회로 향했습니다. 새벽에 도문교회에 도착해서 담장을 넘어 석탄창고로 들어가 몸을 숨겼습니다. 사람들이 새벽예배를 마치고 나와 집으로 다 돌아가기까지 기다린 후에 저는 동생을 데리고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간 줄만 알았던 제가 다시 모습을 나타내니 장로님은 놀라 어리둥절해 하셨습니다. 두만강을 건너자마자 잡혀 친구는 도망가고 저는 어찌저찌 다시 탈출 하였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으신 장로님께서서는 제가 놀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너희 어머니께서 여기 와 계신단다.” 어머니가 남양으로 친척들에게 도움을 구하려 가셨다는 것은 동생에게 들어 알고 있었지만 중국에 오셨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기에 저도 적잖이 놀랐습니다. 어머니께서 연길 친척집에 계시다는 이

야기를 듣고 저와 동생은 바로 연길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장로님께서 마련해주신 옷으로 갈아입고, 쥐어주신 여비를 가지고 연길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어머니가 계시다는 친척집에 도착해 들어가보니 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북으로 다시 넘어가야 하는데 비가 올 것이 걱정되어 비가 오나 안 오나 창문을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인기척 소리에 뒤를 돌아보신 어머니는 저와 막내를 보고 “얘들아, 너네 어떻게 왔니?” 라고 외치며 놀라셨습니다. 저는 문목사님에게 소식도 전할 겸 다시 목단강으로 들어갈 생각이었는데, 어머니와 여동생도 같이 데리고 가기로 하였습니다. 어차피 어머니가 다시 북으로 돌아가셔도 그곳에 먹고 살길은 없었으니 말입니다. 일주일 정도를 연길에서 머물며 재정비를 하고 가기로 했습니다. 여동생은 그때 당시 17살 정도였는데, 연길 친척집 아래층에 있는 교회에 북한 꽃제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는 그 아이들과 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목단강에 도착하니 보위부에서 도망쳤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무사히 빠져나와 목단강까지 갔던 것입니다. 감격의 재회를 마치고 목사님께 어머니와

여동생을 소개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동생은 아직 어리니 본인이 데리고 있겠다고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와 어머니는 목단강에 있을 곳이 없어 북라고로 가야했습니다. 다시 북라고에 돌아가니 권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저희를 반기는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권 집사가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가 있을 곳을 마련했으니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권 집사를 따라 차에 탔습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호림시(虎林市) 지역이었습니다. 호림시 시내에서도 한참을 들어가 도착한 곳은 호두진(虎头镇)이라는 마을이었습니다. 권 집사는 그곳의 촌장을 소개시켜 주고는 자신은 가야 한다며 바로 다시 목단강으로 돌아갔습니다. 호두진은 러시아와 국경을 두고 있는 국경 마을이었습니다. 도문에서도 러시아 국경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야 있는 그곳은 정말 시베리아의 혹한을 방불케 하는 추위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 겨울에는 영하 40도까지 내려가기 일쑤였고 바깥에서 소변을 누면 소변이 바로 얼어버릴 정도였습니다.



〈중국 흑룡강성 지치시 호림시에 위치한 전바오(러시아어 다만스키)섬. 이 섬은 1960년대 중소 국경 분쟁 당시 양국이 가장 심각하게 충돌했던 곳이다.〉

저와 어머니는 집 같지도 않은 허술한 건물에서 겨울을 나야 했습니다. 촌장이 농사철에만 와서 사용하기 위해 허술하게 지어놓은 농막을 우리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얼마나 허술한 농막이었는지 사방에서

매서운 겨울바람이 들어와서 집에서도 동북을 꺼입고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집에서 살면서도 농촌 일을 도와야 했기에 매일 끝이 안 보이는 넓은 벌판에 나가 일을 했습니다. 그 벌판은 다 진떨어서 모를 심을 수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그런 땅을 갈고 모를 심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 중노동을 했습니다. 어머니도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추위를 견디며 저와 일꾼들의 밥을 지어 주시는 등 갖은 고생을 하셔야 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머슴살이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곳이 안전한 곳이라고 해서 따라왔지만 어떻게 이렇게 혹독하게 일을 시킬 수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갈 곳이 없었던 저희는 그저 맡겨진 일을 묵묵히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께서 중국에 오시고 나서 교회를 다니시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고 밤마다 라디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들으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신앙 덕분에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그 어려운 순간들을 버텼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는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저희와 같이 농막에서 지내며 농사일을 하던 창수 씨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창수 씨가 크게 다쳐서 왔습니다. 낮에 잘못하여 다리에 큰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상처 자리가 깊아 썩어들어가는 상황이 되었고, 이대로 가다가는 다리를 절단해야 할 처지였지만 외진 시골에 머슴살이 비슷하게 하던 청년의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의료 조치는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밤마다 끔찍거리는 창수 씨를 걱정스럽게 지켜보던 저희 어머니는, 어디서 그런 믿음이 생겼는지 창수 씨를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썩어들어가던 창수 씨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기 시작하더니 며칠이 되지 않아 회복된 것입니다. 평소 극동방송 라디오를 듣던

어머니에게 편지를 주던 창수 씨는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붙잡고 죄송했다고 하며 앞으로 자신도 예수를 믿겠다고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저나 저희 어머니는 예상치 못했던 기적에 깜짝 놀라면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춥긴 했지만 한 겨울이 끝나가던 3월, 저희의 농막에서의 시간이 6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북라고 교회에서 호두진으로 편지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그 편지는 아내가 북한에서 저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내용인 즉슨, 자신이 지금 남양에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으니 와서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편지가 쓰인 시간은 한 달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고 아내를 찾으러 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농장 주인에게 찾아가 이제 이곳을 떠나야 할 것 같으니 지금까지 일한 만큼의 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주인장은 그게 무슨 소리냐며 펄쩍 뛰었습니다. “너희를 데리고 온 사람이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지만 하면 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데리고 있었던 건데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우리를 데리고 온 사람에게 이미 차비랑 여비에 수고비까지 더해 충분히 값을 치렀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데리고 온 사람은 권 집사였습니다. 권 집사는 우리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안전한 곳이라고 하며 두고 갔지만 사실상 우리를 그 변경 농촌에 팔아넘긴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권 집사가 보여준 행동은 어떤 호의를 찾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의 인연이나 문 목사님의 신뢰와는 전혀 어긋난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지금까지 권 집사가 했던 말들과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

버지가 잡혀가신 이야기를 하면서 문 목사님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말하던 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처음 중국으로 가기로 결심한 이유였던 아버지가 남겨두신 돈과 옷가지들이 왜 그렇게 사라진 것인지, 그리고 아버지에게 중국 돈 3천원이 남았을 때 아버지를 팔아넘긴 사람이 누구인지 알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처음 북라고에 갔을 때에 난처해 하던 그의 모습, 그리고 이번에 다시 어머니와 북라고로 갔을 때에 보였던 그의 꺼림직한 표정도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권 집사는 아버지를 팔아넘기고 나를 볼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으니 나와 엄마까지도 이 먼 호두진에 팔아넘긴 것이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길을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주인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아내를 찾으러 갔다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데리고 가지 말고 혼자 갔다 오고 본인이 차비를 대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도 무조건 함께 가야 한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잠시 생각하던 주인장은 알겠다고 허락하면서 대신 북한에 가서 북한 아가씨들을 서너 명 데리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이곳에 노래방을 열려고 하는데 북한 아가씨들이 필요하다며 데리고 오는데 돈이 모자라면 본인이 돈을 보낼테니 전화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속으로는 정말 기가 찬 이야기였지만 일단 알겠다고 대답하고 택시비 800원을 받아 그곳을 탈출했습니다. 어머니는 호두진을 벗어나는 택시 안에서 “호랑이 아가리에서 나왔다”며 안도하셨습니다. 6개월 간의 노예생활을 마치고 탈출한 것입니다.

저희는 그 길로 다시 목단강에 문 목사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어야 할 여동생이 없었습니

다. 알고 보니 저희 여동생이 목사님을 모시고 있던 조선족 여자 집사의 아이들과 문제가 생겨 싸운 일이 있었는데 그 일로 집사님에게 호되게 혼이 난 후, 이 집에서 못 살겠다고 뛰쳐나갔다고 했습니다. 연길로 간다며 뛰쳐나갔기 때문에 다들 연길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동생을 찾기 위해 연길 친척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그곳에도 없었습니다. 연길에 머물며 동생을 찾았지만 동생의 행방은 묘연할 뿐이었습니다.

이내를 도울만한 돈도 없고, 동생도 찾아야 하는데 계속 연길에 머물기에는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친척 집에도 민폐여서 고민하던 차에, 친척 집에서 안도현에 사는 집사님 집에서 일을 하면서 지내면 어떻겠냐고 말씀해주셔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소개받은 집에 머물며 어머니는 보모로 일을 하시고 저는 그 집 사위와 함께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위는 저수지 관리직을 맡고 있었는데 일부러 그 자리를 맡기 위해 한국에서 벌어들인 돈을 써서 그 자리를 꿰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저수지 관리를 하기 위함이 아니었고 그곳에서 자라는 기름개구리를 잡아 장사를 할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북방계 지역에 서식하기 때문에 북방산 개구리라고도 불리는 이 기름개구리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알을 낳기 위해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암컷들에게서 채취할 수 있는 기름덩어리 1킬로그램이 당시 한국 돈 150만 원 정도의 값을 받는 귀한 약재였습니다. 사위는 제게도 그 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암개구리를 잡아서 말려 기름을 채취하는 일을 같이 하면 중국 돈 천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 동안 그 집에서 지내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그 사위의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다른 북한 사람들은 먹여주고 입혀주지만 해도 일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에게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돈을 안 받고는 일 할 수 없다고 말했더니 그도 같이 일 할 수 없다며 그곳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안도를 떠나 다시 목단강으로 돌아가기로 했고, 보모로 일하고 있던 어머니는 안도에 남기로 하였습니다.



〈기름개구리(북방산개구리), 이 개구리의 암컷에서 채취한 '합마유'는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고가에 거래된다〉

돌아가보니 문 목사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미국에 들어가셨고, 북라고에는 철천지 원수인 권 집사가 있었기에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목단강에서 한 전도사님이 본인 집 뒤편 창고에서 북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 통독반을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생각이 나 그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열흘 정도 그곳에 있었는데 통독반 여건이 계속 그곳에 머물기는 여의치 않아 보였습니다. 그때 문득 안도에서 만났던 할머니 전도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 전도사님은 제가 안도의 집사님 집에서 지별적에 만난 분이셨는데, 그때 당시 제가 김익두 목사의 증손자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자신의 전화번호를 주시면서 자신이 목단강 옆 념안시(宁安市)에 사는데 목단강에 오게되면 전화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마침 통독반 사람들과 념안 시내에 갈 일이 있어서

그 할머니 전도사님께 연락을 드렸고, 그분을 념안에 서 만났습니다. 저는 그분께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는지 여쭙었고, 그분은 한국에 연락을 해봐야 하니 이틀 뒤에 다시 전화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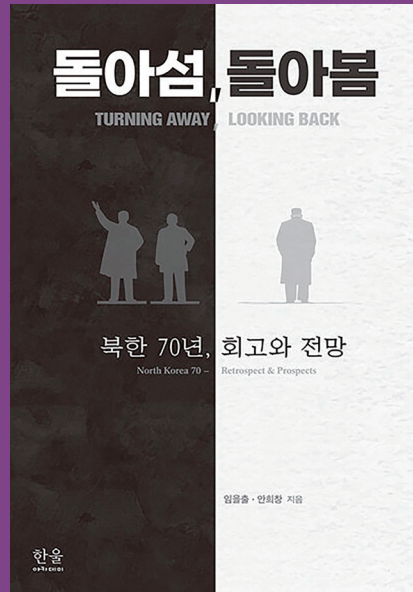
이틀 뒤에 다시 전화를 드렸을 때 할머니 전도사님은 한국 포항의 주찬양교회 이사랑 목사님께서 지원해 주시기로 했다고 하시면서 본인이 운영하시는 통독반에 와서 지내도 된다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같이 이전 통독반에 있던 친구 한 명을 데리고 그 할머니 전도사님이 계신 곳으로 옮겨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대로 성경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성경공부를 시작한 날은 우연인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인지 제가 북한 감옥에서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겠다고 서원하고 두만강을 넘은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1년 동안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이곳저곳을 헤매었지만 결국은 기도했던 대로 성경을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성경공부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성경공부만 해야 했습니다. 이전 통독반에서 함께 왔던 친구는 이들을 공부하고는 너무 힘들다며 돌아갔습니다. 저도 힘들었지만 어떤 일인지 저는 그곳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안도에서 이곳으로 오셔서 재회했지만 다시 다른 곳에 보모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그곳에 남아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5개월 정도 지냈을 때 한국에서 이사랑 목사님이 직접 념안으로 오셔서 만나게 되었는데 한국에서 저를 위해 기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 이름을 주셨다며 “김정직”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몇 달 전, 두 사람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저희 둘을 위해 기도하시던 중 하나님께서 저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친구를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이름만 주셔서 난감했는데, 중국에 들어와보니 다른 친구는 이미 떠나고 없다는 것을 아시고 이해하셨다고 했습니다.

이후 저는 목사님의 후원으로 가짜 신분증(호구)를 취득하였고, 덕분에 목사님을 따라다니며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지역들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목사님과 함께 집회를 다니며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중, 원수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듣고 마음에 큰 번민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바로 목사님을 찾아가 목사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안도에서부터 마음에 품고 있었던 권 집사에 대한 마음을 쏟아놓으며 품에 숨기고 다녔던 칼을 꺼내 놓았습니다. 혹시 그를 만나면 죽이겠다는 마음을 품고 가지고 다녔던 칼이었습니다. 이사랑 목사님은 그런 저에게 “당신도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당신을 위해 가장 귀한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이야기를 들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권 집사보다 더한 살인자가 바로 나였다는 것을... (계속) 

북한 이해를 위해 더 읽을만한 책



제 목: 돌아섬, 돌아봄
저 자: 임을출, 안희창
출판사: 한울 아카데미
발행일: 2026년 8월 10일
가 격: 38,000원

《돌아섬, 돌아봄》은 북한의 어제와 오늘에 대해 심도깊게 분석한 북한 연구 서적이다. 이 책의 저자인 임을출, 안희창은 90년대부터 기자로서 일선에서 북한 관련 취재 활동을 해 왔고, 이후에는 북한 전문 학자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북한을 2019년 2월 북미 정상회담 결렬을 기준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2019년 이전의 내용을 설명하는 1부에서는 체제, 정치, 경제, 군사 부분을 더 세분화한 10가지 키워드에 대하여 짧은 호흡으로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체제를 설명할 때도 ‘북한 체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기보다는, ‘유일 세습 체제 형성’, ‘공포정치와 숙청’, ‘통제와 감시’를 각각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

다. 독자가 자신이 알고자 하는 이슈의 역사적 맥락과 배경을 살펴보는데 좀 더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이 드는 구성이다. 2019년 이후를 설명하는 2부에서는 북한의 바뀐 정책과 노선을 10여 가지로 추려서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 3부에서는 역대 대북정책 평가와 북한에 대한 전망 및 대북정책 제언을 끝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이 책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북한이 걸어온 길을 정리하면서 김정은의 북한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특징과 성격을 분석한 책이다. 책의 서문에서 저자는 기자로서 각종 북한 관련 사건을 취재, 보도하면서 사건과 정책의 ‘진상’에 충분히 다가가지 못했던 아쉬움이 이 책을 쓰게된 이유 중 하나라고 밝히면서, 이를 반영하여 다양한 자료를 인

용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일반 독자들에게 다가가고자 했다고 한다.

서문의 설명과 같이 이 책은 다양한 자료들을 인용하면서도 각 부와 장의 내용을 간결하게 구성하였다. 일반적으로 시대별로 서술되어 있는 일반 연구서적들은 북한의 특정 영역의 변천을 추적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각 키워드를 중심으로 1950년대부터 최근까지 정리되어 있어 주제별 이해에 유익하게 다가왔다. 특히 2019년을 기점으로 1, 2부를 나눈 것은 좋은 시도라는 생각이 들었다. 북한 연구 서적을 읽다 보면 종종 최근 북한의 변화상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전 모습과의 구분이 명확하지 못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이 책은 2019년을 기준으로 바뀐 정책 노선을 별도의 장으로 편성하면서 북한의 최근 변화된 정책과 노선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형식을 취했는데, 책을 읽으면서 이러한 구성이 가진 장점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이 책은 기자로서 취재 과정에서 경험한 에피소드를 별도로 삽입하기도 하고, 각 장의 부제목도 딱딱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고자 한 점 등 일반 독자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노력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이 책의 독창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장에서 다루는 대북정책에 대한 제안일 것이다. 저자들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견지하는 한, 대한민국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매력 국가’로 만드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라고 주장한다. 책에서 이야기하는 매력 국가는 조지프 나이아가 제시한 소프트파워의 극대화 된 형태이다. 정치, 경제, 문화 각 영역에서의 발전을 통해 전 세계의 인재와 자본이 자연스럽게 몰려드는 위상을 갖춘 국가이다. 대한민국은 전후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매력

적인 서사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심각한 국론 분열과 갈등 구조를 극복하고, 경제력과 국방력을 보강해 국가 안보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질적인 성숙을 이룬다면 매력국가에 다가설 수 있다고 이 책은 제안한다. 그리고 매력 국가화의 관건으로 대통령의 리더십을 강조한다. 대통령의 초당적·실용적·포용적 리더십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매력 국가’ 건설 제안에서 통일을 넘어 대한민국이 어떤 국가로 발돋움해야 하는지에 대한 저자의 바람이 느껴졌다. 또한 남북관계와 통일이 그 자체가 어떤 개별 프로젝트가 아닌,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가 질적으로 발돋움할 때 따라 오는 열매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

《돌아섬, 돌아봄》은 북한의 어제와 오늘을 세부 주제별로 간결하게 정리하여, 전문 연구자는 물론 일반 독자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안내서이다. 최근 북한의 변화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대북정책의 방향을 함께 고민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일독을 권해본다. 📖

트럼프 “한미 연합 군사 훈련 규모 축소... 올해 안에 김정은 만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월 16일(현지시간) 한미 연합 군사 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SNS 글에서 김 위원장과 자신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연합훈련이 북한에 부적절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를 염두에 두고 북한에 유화적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에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안에 김정은과 만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만날 것이다(I will be)”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편지를 교환했느냐는 물음엔 “그건 말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나는 그와 잘 지내고 있다. 내가 그와 잘 지낸



〈트럼프 미 대통령이 8월 15일(현지시간) SNS에 게시한 김정은과의 사진〉

다는 사실은 나쁜 게 아니라 좋은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수를 이처럼 구체적으로 밝힌 건 처음이다

이와 관련하여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기간 북미정상회담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북한은 8월 19일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명의의 입장발표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대해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 논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북미 지도자 간 소통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참고: 연합뉴스 외 언론 보도 종합)

교도통신 “北, 러 파병 5만 명으로 늘려 국경 방어할 듯... 러군, 돈바스 집중”

북한과 러시아가 오는 11월 말까지 러시아에 파견되는 북한군 규모를 5만명으로 늘리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 자료를 인용해 8월 13일 보도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북한과 러시아는 약 석 달에 걸쳐

북한의 파병 규모를 현재 1만명 수준에서 5만명으로 늘리고,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러시아 서부 3개 주에 북한 병력을 배치한다는 구상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북한군에 서부 국경 방어를 맡기고 자국 군대를 교착 상태인 돈바스 지역으로 집중시

한국은행 “작년 북한 경제 3.5% 성장... 북러 협력 확대 등에 3년 연속 3%대”

	북한		한국	
	2024	2025	2024	2025 ^o
농림어업	-1.9	3.6	0.7	0.5
광공업	7.6	4.9	4.8	2.3
제조업	8.8	1.6	-13.5	-7.2
제조업	7.0	6.6	4.9	2.4
(경공업)	(-0.7)	(3.8)	(2.7)	(-2.0)
(중화학공업)	(10.7)	(7.8)	(5.3)	(3.2)
전기·가스·수도사업	0.9	-0.4	4.2	-0.6
건설업	12.3	6.3	-3.3	-9.2
서비스업	1.3	1.8	1.7	1.7
(정부)	(1.2)	(1.0)	(2.0)	(1.8)
(기타 ¹⁾)	(1.7)	(5.1)	(1.6)	(1.7)
국내총생산(GDP)	3.7	3.5	2.2	1.1

주 : 1) 도소매 및 숙박음식, 운수 및 통신, 금융보험 및 부동산 등을 포함

〈북한 산업별 성장률 (자료:한국은행 보고서)〉

지난해 북한 경제가 북·러 경제 협력 확대와 대중 무역 증가, 국가 정책 사업 등에 힘입어 3년 연속 3%대 성장률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7월 31일 '2025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보고서에서 유엔의 국민계정체계(SNA) 방법을 적용해 추정한 북한의 성장률 등 각종 통계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

총생산(GDP)은 38조2천640억원으로 전년(36조9천654억원)보다 3.5% 늘었다. 북한 경제는 2023년 3.1%, 2024년 3.7%에 이어 3년 연속 3%대 성장을 이어갔다. 지난해 북한 실질 GDP 규모는 유엔의 대북 경제 제재가 본격화한 2017년(37조7천435억원)을 상회했다.

서정석 한은 국민소득총괄팀장은 "작년 경제 성장에는 특히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 확대가 많은 영향을 미쳤다"면서 "무기 수출이 늘면서 제조업의 전후방 연관 산업의 생산량이 증가했으며, 러시아 관광객 증가 및 관련 교통망 확충으로 건설업과 숙박, 음식업, 운수업 등 서비스업도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총소득 면에서는 러시아 파병으로 인한 외화 수입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대내적 요인으로는 북한 내부의 지방발전 20×10 정책 등을 통한 경공업 투자 확대 등이 성장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참고: 연합뉴스, 7월 31일)

키는 것이 러시아의 목적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해설했다.

이는 최근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병력 3만명을 추가로 파견받기를 원하고 있으며 접경지 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7월 25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3만명 추가 파병을 원한다. 6월부터 러시아 보로네시 지역에 이들을 수용하기 위

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이후 같은 주장을 반복해왔다.

우크라이나 정보총국 조사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 내에 파병된 북한 지상군은 약 9천500명으로 파악된다. 또한 북한은 최근 신형 KN-23, KN-24 탄도미사일 40기와 운용 인력을 러시아에 추가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작년 8월부터 러시아에 제공한 미사일은 약 150기로 추산된다. (참고: 연합뉴스, 8월 13일)

“김밥 잘 만드는 북한여성 고용하실 분”… 러시아 인력업체 광고



〈러시아 텔레그램 뉴스 계정인 '오스토로조노 노보스티'가 지난 8월 9일 북한 여성 노동자들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행 비행기에 타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며 개시한 사진〉

러시아에서 북한 여성 노동자들을 식당이나 공장에 공급하겠다는 인력업체의 광고가 등장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가 8월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시아 온라인 거래 사이트 아비토에 게재된 광고에 따르면 한 인력업체는 북한 여성 노동자 40명을 모스크바 지역 사업장에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업체는 북한 여성 노동자들이 김밥을 만드는 데 능숙하다면서 식당을 비롯해 생산라인과 섬유공장, 농업 분야에 투입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근무 조건에 따르면 북한 여성 노동자 40명은 한 팀으로 근무해야 하고, 여러 사업장에 나눠 배치할 수 없다. 이는 북한 당국이 노동자들의 이동을 감시하고, 한 사업장에 묶어두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근무 시간은 한 달에 26~28일, 하루 11시간 근무하는 조건이며, 업체가 제시한 임금은 시간당 480루블(약 8천200원)이다. 중개업자와 당국자, 북한 정부가 중간에서 상당 액수를 챙겨 실제 노동자들이 받는 금액은 훨씬 적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노동력이 부족한 러시아에서는 최근 북한 노동자들의 유입이 늘고 있다. 모스크바 인근 만두공장에서는 다수의 북한 여성 노동자들이 일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러시아 서부의 섬유공장과 농업시설, 물류센터 등에서도 북한 여성 노동자들이 대거 고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구인 사이트에는 북한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공장과 건설 현장 등에 투입할 한국어 통역사를 모집하는 광고도 늘고 있다. (참고: 연합뉴스, 8월 13일)

탈북 실패 북한 주민 수감시설 운영규정 보니… ‘무한 강제노동’

북한 당국이 탈북 시도자를 수용하는 시설인 ‘비법 월경자 집결소’의 운영규정에 사실상 무제한으로 강제노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권침해 소지가 큰 규정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장은 최근 확보한 북한의 ‘2018년 비법월경자 집결소 규정’(집결소 규정)에서 이러한 조항을 확인했다고 7월 27일 밝혔다.

집결소 규정 제5조는 비법 월경자(탈북 시도자)들이 집결소에 머무는 기간에 “필요한 노동을 시켜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실장은 “문제는 시간의 제한 없이 ‘필요한 노동’을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이 실장은 “집결소 관리들이 이 규정을 악용하여 수감자들에게 강제노동을 부과한 것”이라며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시간의 제약,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노동을 시킬 수 있다는 식으로 집결소 규정의 개정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규정 제15조 3호에서는 상호 감시로 탈주를 방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집결소 규정에는 또 비법 월경자들을 수감할 때 검신

(檢身·신체검사)을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제10조)도 포함돼 있다. 이 실장은 “강제 복속 탈북 여성들에 대한 알몸 수색 및 자궁검사 등의 인권침해는 이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규정에는 여성에 대한 검신을 여성 보안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한다. 여성 보안원이 없을 때는 여성 종업원 등이 대신 신체를 검사하도록 했다.

이 실장은 교화소, 노동단련대, 노동교양대, 구류장 등 다른 구금시설이나 정치범 수용시설에도 운영규정이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런 규정들을 통해 북한의 구금시설 및 정치범 수용시설 운영과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가 보다 면밀하게 파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고: 연합뉴스, 7월 27일)

여름철 북한 폭염, 홍수 피해 잇따라

북한도 폭염 및 수해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8월 11일 데일리NK는 북한에 발생한 온열질환 환자가 4,300여명, 사망자는 100명을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8월 3일부터 9일까지 북한 중부 이남 대부분 지역과 북부 일부에 ‘무더위주의경보(낮 최고기온 33~35도)’를, 8월 3일부터 8일까지 평양

과 평안북도, 자강도에 ‘고온주의경보(낮 최고기온 35~40도)’를 발령하기도 했다.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수해 피해도 보고되고 있다. 8월 7일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7월 말 황해북도 신계군 중심부의 대규모 군사기지와 주변 마을이 심각한 홍수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다. 보도

에 따르면 수해로 인해 군사기지뿐 아니라 부대 주변의 단층 주택 380여 채도 파괴되었다. 이 외에도 해당 언론은 위성사진을 통해 강원도 이천군 북부와 판교군 남부에서도 산사태와 홍수로 주택과 도로, 교량 등이 파손



〈8월 2일 조선중앙TV 날씨보도〉

된 정황을 보도했다. 앞서 북한은 신계군에 하루 264.7mm, 23일에는 207mm의 비가 내렸다고 보도했다. 다만 현재까지 신계군을 비롯한 지역별 수해 규모나 피해 현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참고: 언론보도 종합)

1 북한과 중국은 6월 8~9일 북중 정상회담에 이어 잇따른 고위급 인사 교류를 통해 양국 간 협력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신압록강대교의 북측 세관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관련된 화물차 전산 등록 절차가 이루어지는 등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한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움직임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양국 관계 개선이 북한 선교의 문이 넓혀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강화된 국경 통제와 디지털 감시 체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새로운 길을 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와 함께 현장의 선교사와 사역자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안전하고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확대될 북중 경제 협력이 북한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동안 오랜 국경 봉쇄로 고통받던 북한 주민들에게 이번 북중 경제 교류 확대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양국이 비공식무역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가운데 검역이나 통관 절차는 전에 비해 복잡해지면서 현재까지는 이러한 교류가 규모있는 기관이나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무역에 필요한 외화 수요가 급증하면서 환율과 물가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경제 협력이 정권과 특권층의 외화벌이에만 그치지 않고, 물가 불안과 환율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 서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식량과 생필품의 수급이 원활해지고, 고단한 노동 속에 있는 주민들의 일상에 최소한의 생계 안정과 평안이 주어지도록 기도합니다.

3 북한은 헌법을 개정하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통일의 기반이 되어 온 민족에 대한 의식이 우리 안에서도 점차 약해지는 가운데 북한이 통일과 민족 개념을 모두 폐기하면서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평화와 충돌하는 것처럼 비추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분단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 진정한 평화는 아닐 것입니다. 또한 북녘의 동포들과 지하성도들을 생각할 때 통일을 위한 노력을 멈출순 없습니다. 변화된 상황에 맞는 새로운 통일과 평화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한반도 전역을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 하는 정체성을 지켜온 한국교회가, 이러한 뿌리와 자산을 잘 지키고 복음적 평화통일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4 해외 북한 선교 현장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과 주변국 간의 밀착 관계 속에서 선교 현장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종교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국 내 체류하는 탈북 여성들에 대한 디지털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종교적 성격을 가지고 북중 국경을 방문하는 여행팀에 대한 단속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러시아는 탈북자 사역을 하던 백 모 선교사님이 여전히 억류 중인 가운데, 지난 1월에 체포되신 박 모 선교사님에 대한 재판 과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높아진 선교 현장의 긴장 속에서 일선의 선교사와 현장 사역자들이 변화하는 상황에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특히 갇힌

선교사님들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5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과 갇혀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은 성경을 비롯한 기독교 관련 미디어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규정하는 등 기독교인에 대한 극심한 탄압과 박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 중인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님은 그 기간이 만 11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진 지하 교회 성도와 강제 복송 탈북 여성 신자가 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하루 속히 중단되도록 기도합니다. 수용소에 갇힌 성도와 억류된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연좌제로 인해 처벌 및 추방을 당한 지하 교회 성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6 수해와 폭염으로 피해를 입은 북한 주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 여름 폭염으로 북한 내 4,300여명의 온열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100여명이 넘게 사망했다는 뉴스가 들려옵니다.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소식도 들려옵니다. 북한은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한 곳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의 경제 사정과 전기 사정 등을 생각할 때 에어컨 등 폭염에 대비한 설비를 갖추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피해를 입은 북한 주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급격한 기후 변화 속에서 북한 주민들이 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관련 인프라가 확충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7 현장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큰 비로 인해 중국 동북지역 곳곳에서 수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체류 북한 여성들 대부분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만큼, 이번 수해는 이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많은 중국 내 북한 여성들이 수해로 인해 경작하는 옥수수밭이 침수되고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는 등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특정 지역의 경우 수해가 농작물을 넘어 직접적으로 생활 현장을 위협하여 집을 버리고 대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수해로 인해 피해를 당한 북한 여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과 이로 인한 심적인 고통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
 * E-mail : info@opendoors.or.kr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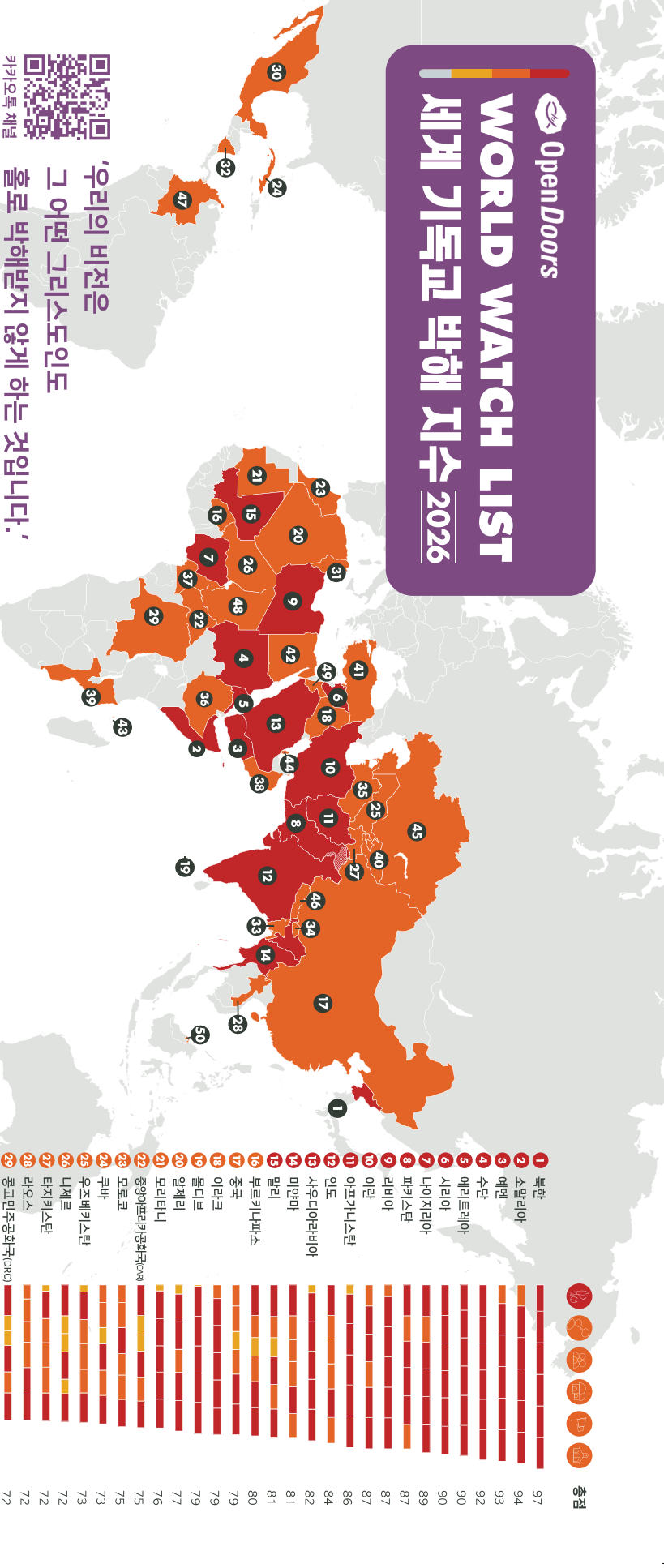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26년 8월 31일

OpenDoors WORLD WATCH LIST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 2026



‘우리의 비전은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홀로 박해받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카카오톡 채널



국가 목록에 대해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는 오픈도어의 분석가들이 150개국 현지 전문가들의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각 국가의 박해 상황은 폭력과 압박을 추적하는 점수 시스템을 통해 기록된다. 이는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 사건의 수와 심각성, 그리고 신앙 생활의 5개 영역에서 박해의 정도를 측정한다.

폭력 개인 생활 가족 생활 공동체 생활 국가 생활 교회 생활



각 항목의 최대 점수는 16.7점이며, 이를 모두 합산했을 때 총 최대 점수는 100점이다.

각 국가의 순위는 100점 만점 중 해당 국가의 총점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박해의 심각성을 나타낸다.

박해 정도

● 높음 ● 매우 높음 ● 극심함
4.1-60점 61-80점 81-100점

목록에 포함된 모든 국가는 기독교 박해 수준이 '매우 높음' 또는 '극심함' 단계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는 해당 국가 내 기독교인들이 겪는 박해의 강도가 매우 심각함을 보여준다.



+



=

순위



총점

